

#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 ASK Dr. Universe (<http://www.wsu.edu/DrUniverse>)



길을 걷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궁금함. 왜 그럴까?

하지만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

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 곳 Ask Dr. Universe도 이와 같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Q&A 사이트 중 하나다.

인기 질문 코너에 가보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됐으며, 그들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와 같은 최근 질문부터 원자, 블랙홀, 야채, 동물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다.

코너 아래쪽에는 목록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미 답변돼 있는 질문과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사이트 링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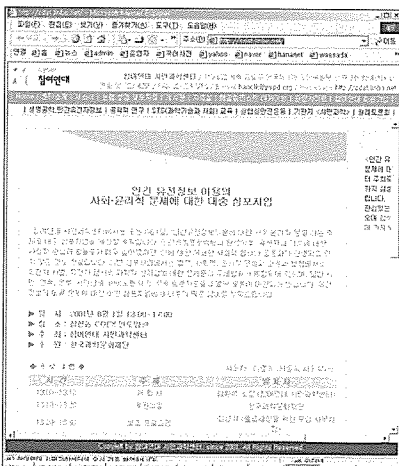
화분에 담겨진 곡식 등 다양한 유물과 현상을 통해 마야 문명을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마야의 비밀', 지놈,

DNA, 유전자라는 말을 너무 들어 유전학에 대해서 다 알아버린 것 같지만 실체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유전학에 대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Dr. Universe의 유전학 코너' 등은 질문을 좀더 특화해서 구성된 특별 코너들이다.

오늘의 질문, 질문 찾기,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면 사이트를 좀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Dr. Universe가 정보를 얻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소개한 'Links' 페이지도 유용한 웹사이트 자료가 될 것이다. 귀여운 캐릭터로 구성된 이 사이트의 바탕화면도 독특하고 재미있다.

왜 이름이 Dr. Universe일까?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울 것이다.

## 시민과학센터 (<http://www.cdst.jinbo.net>)



과학과 기술은 인류의 삶을 좀더 윤택하고 편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만큼 인간의 정신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류는 파멸

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다이내마이트, 원자폭탄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무기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만이 무서운 것은 아니다. 최근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간지놈프로젝트 완성을 토대로 전개될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은 인류에게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전자 판별로 인해 질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또 유전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명되는 사람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 시민과학센터는 과학기술이 인류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학기술

분야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참여연대 소속이다.

생명공학·인간유전자정보, 공익적 연구, STS(과학기술과 사회) 교육, 실험실안전운동, 기관지 <시민과학>, 월례토론회 등 여러 카테고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탓에 현재 인간배아복제 외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보도 부족하다. 특히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활동과 참여도가 저조하다. 이제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시민과학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⑤7

朴 應 緒 (동아시아언스 기자)